

정읍 출향 작가 기획전시 개막

‘집으로 가는 길 귀로’ 정읍시립미술관서 12월 18일까지 11명 작가 47점 회화 작품 전시

정읍시 출향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시 ‘집으로 가는 길 귀로’가 지난 20일 정읍시립미술관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한 축을 이루는 정읍의 지상스러운 작가들과 작품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회에서는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정읍을 떠나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줄기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구상 미술과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거부한 비구상 미술을 통해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10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60일간 이어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제2의 고향으로 정읍에서 활동했던 송동표 작가를 비롯해 김중현, 박득봉, 이동영, 임장수, 전수현, 김강용, 박종철, 윤병로, 유휴열, 이동근 등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 11명의

회화 작품 47점이 출품된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오후 5시까지 입장을 마감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시는 연지동 2·2리미술관에 출향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립미술관으로의 방문 유입을 이끌 예정이다.

또한, 전시 연계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가을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정읍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한국의 미술사에 있어 우수한 정읍의 작가들을 모실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정읍의 문화예술을 알아가면서 예술과 함께 올 가을의 선선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기획전시 ‘집으로 가는 길 귀로’ 포스터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 불거리·즐길거리 ‘가득’

전주시, 공연·전시·강연·체험·전통놀이 등 다채롭게 열려

깊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최명희문화관과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마당, 쌍샘우물터에서 2022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특화 축제는 중앙초 학생들과 풍남동

등 지역주민들의 사전참여와 더불어 행사 당일 최명희문화관과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등 한옥마을 문화시설들의 프로그램, 지역 작가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 강연, 체험,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백아야기, 책나누기(최명희문

학관) △선자장 시연(전주부채문화관) △전기수와 소리꾼 공연(완판본문화관) △주신제(전주전통술박물관) △유상곡수연(쌍샘우물터) △지역작가 아트마켓 등이 펼쳐졌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한옥마을 방문객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자,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더욱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시각예술 전주-제주 교류전 중견작가 참여 공모

전주문화재단, 지역 연고 만 40세 이상 참여작가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1월 7일까지 2022 시각예술 국내교류지원 사업: 전주X제주 교류전에 참여할 전주지역 시각예술 중견작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주X제주 교류전은 우리 지역 작가의 타지역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활동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 중견작가 집중재조명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 연고의 개인전 5회 이상 전시 이력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견작가로, 공모는 미발표 작품을 우선으로 해 최종 6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 임대료 150만 원과



2021 전주X제주 교류전 현장 사진

함께 교류전시 및 전시도록 제작, 전시 홍보 등을 지원하며, 제주 문화예술계와의 교류 기

회도 주어진다.

공모 결과는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11월 14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전주X제주 교류전은 12월 중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김정경 문예진흥팀장은 “시각예술 분야의 교류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성격의 교류지원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전주의 시각예술가와 타지역 시각예술가가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제주 전시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했던 전주·제주 예술가 간 교류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jkf.or.kr)나 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기자

전주전통술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전통술 복원 위한 성과·계획 공유·연말까지 다양한 전시 진행

우리 전통 기양주의 명맥을 잇고 현대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주전통술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비롯한 기념식을 열었다.

전주전통술박물관(관장 박일두)은 지난 22일 전주한옥마을 내 박물관 마당에서 개관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전통술 복원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한국의 누룩 전시, 대한민국 명인.명주전, 교육생 출신들의 기양주 전시, 술을 주제로 한 수유시화전 등 우리 전통주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 등을 읊는 전주한옥마을 쌍샘우

물터 유상곡수연을 시민들과 함께 시연했다.

전주전통술박물관은 2002년 전주 한옥마을이 조성될 당시 첫 문화시설로 개관해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통술 박물관으로 대한민국 전통주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전통주를 복원, 연구, 홍보해 한옥마을 지역민들과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기양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박일두 관장은 “일제 강점기에 명맥이 끊겨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양주를 복원하자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노력한 시간이 벌써 20년에 이르렀다”며 “전통 기양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삶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황재근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하며, 이번 이야기 손님인 황재근(사진) 디자이너로,



‘복면 디자이너, 가면 너머의 이야기’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에서 황재근 디자이너는 세계 3대 패션학교인 벨기에의 ‘엔트워트 왕립예술학교’

유학 시절,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에서의 우승입화, 복면가왕 가면 디자인 후일담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우리 음악 즐기기에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이 출연해 가야금과 거문고의 이중주가 돋보이는 기악중주 ‘설삼이 보이는 풍경’, 25현가야금의 다양한 음색과 화려한 연주법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리랑’을 독주로 선보이며, 관란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우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오케스트라로 들려주는 영화음악 시리즈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1월 4일 오후 7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네번째 이야기 ‘Music in Academy Awards’가 개최된다.

W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남윤에 의해 2008년 창단되어 창단 첫째 고객감동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하며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OST로 감동을 선사한 다. ‘어메이징’, ‘시네마천국’, ‘여인의 향기’, ‘타이타닉’, ‘라라랜드’ 등 오케스트라로 들려주는 영화음악 시리즈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이다.

관람권 예매는 25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



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선운산농협의 웰빙지향 정직한 농민의 마음 브랜드입니다.

■ 본점: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34
- 사 무 실: 0631562-9604
- 팩 스: 0631562-9601
- 아 나 로 마 트: 0631562-9602
- 영농자재판매장: 0631562-9603
- 농기계서비스센터: 0631564-9605

■ 아산시점: 아산면 녹두로 793
- 사 무 실: 562-5007
- 사 무 실(야간): 562-5126
- 팩 스: 561-0955
- 아 나 로 마 트: 562-5166
- 영농자재판매장: 564-9772

■ 공음지점: 공음면 공음길 55
- 사 무 실: 562-7888
- 팩 스: 564-6465
- 아 나 로 마 트: 562-7889
- 영농자재판매장: 562-5556

■ 웰 파 크 지 점: 563-7255
- 팩 스: 563-7256
- 선 운 사 지 점: 561-3443
- 팩 스: 561-4257
- 복분자기공사업소: 564-5008
- 팩 스: 564-5078

■ 농산물유통센터: 562-9644
- 팩 스: 562-9634
- 선운산농협주유소: 562-9600
- 팩 스: 562-9609

최고의품질, 친절한 서비스 / 선운산농협 직접 운영

선운산농협주유소

선운산농협협동조합

■ 상 임 이 사 : 장봉남
■ 비상임이사 : 장성균, 김완식, 주찬자, 나삼주, 김종진, 김범진, 박수정, 허선하, 라종이, 김대열, 이종면, 김대진
■ 비상임감사 : 최형곤, 유화봉

■ 조합장 : 김기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지역에서만 자란 복분자 생과에 선운산농협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1544. 1589
복분자 1번지 선운산농협
http://www.berrywell.co.kr